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8, Vol. 14, No. 1 (특집호), 469～485.

공동체의식의 함양에서 본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점*

정 태 연† 전 경 숙 박 은 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여러 문헌과 자료들에 근거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공동체의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주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덕교육,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의 학교교육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기 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 도덕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자원봉사활동도 점수를 따기 위한 의무적인 활동의 성격이 강했다. 학생들의 학교와 한국국민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결론에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동체의식, 도덕교육, 자원봉사활동, 사회인식.

* 이 논문은 2007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 tjung@cau.ac.kr

www.kci.go.kr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 여러 측면에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해 왔다. 특히, 그 어느 측면보다도 경제적인 성장은 주변 아시아 국가의 모델이 될 정도로 괄목상대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의 독재정부를 극복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등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 역시 발전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부정부패와 여러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상으로도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학교교육을 최우선으로 꼽는데 크게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전의 핵심에는 전통적인 봉건적 사회에서 서구문명의 유입을 통한 근대사회로의 탈바꿈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탈바꿈은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견 한국사회의 교육열만 보더라도 이러한 판단이 꽤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으로도, 한국의 교육적 성취는 구성원들의 문맹률, 학력수준, 학업 관련 국제대회에서의 성적 등을 보더라도 탁월한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의 학교교육이 일견 사회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적 성장에 기여했지만, 그 사회가 학교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목표를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실제 한국사회의 교육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정태연, 김명원, 2003), 하나는 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함양하여 자신의 삶의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개인적 행복을 증대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상대적으로 사적이면서, 사회구성원 간 배타적인 이해관계를 종종 내포한다. 반면, 다른 하나는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대단히 공적이면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일체와 통합을 필요로 한다.

물론,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서로 별개는 아니다.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인간의 양성은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 구성원들 다수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목표가 개인의 목표와 무관하지 않다. 반대로, 개인의 목표가 사회적 목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개인의 속성상 비록 이타적인 욕구가 이기적인 욕구보다 약하다고 하더라도, 학습과 발달을 통해 사회적인 목표를 개인적인 목표로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도덕적인 인간에 대한 존경과 같은 사회적인 평가는 개인적인 목표 설정과 추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개인은 사회적 목표를 자신이 추구할 개인적인 목표로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 두 목표의 조화와 균형이다.

이처럼, 교육은 개인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라는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현실이 정말 이 두 목표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단순하게 말해서, 한국의 학교교육은 개인의 사적인 목표에 집중해 있는 반면, 사회적인 목표 즉, 각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의식과 해야 할 책무를 교육하는 일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의 엄청난 교육열의 근원 혹은 동기는 무엇인가? 너무나 분명하게도, 이 교육열은 거의 대부분 개인 혹은 가족 단위에서 발생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열정에 불

www.kci.go.kr

과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통해 학력과 학벌을 쟁취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오옥환, 2002),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벌주의가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살아남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를 따져보면, 교육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충족에 앞서 사회적 요구에 합당한 구성원을 양성하는 것을 더 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유지를 위해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기적 욕구를 일정 부분 절제하도록 하고, 필요하지만 선천적으로는 약한 이타적 욕구, 가령 도덕성을 학습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도덕교육은 어느 사회에서나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고 임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의 학교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사회적 목표를 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한국의 학교교육이 이러한 공동체[1]의식을 함양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원론적으로, 공동체의식의 단위는 여럿일 수 있다. 가령,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국가, 지구 등등 특정 개인이 속한 모든 집단이 그 단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라는 국가를 그 주된 단위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단위 안에서 개개인들의 삶은 매우 동일한 외적인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서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학교교육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학교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의 현실을 살펴보고, 타인에 대한 배려로서의 자원봉사, 그리고 사회적 차원으로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도덕을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판단의 실천이라고 볼 때, 도덕교육과 자원봉사는 공동체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앞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인 제도로서의 도덕교육을 살펴볼 것이고, 뒷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교육의 한 결과하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실천적인 면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특히 사회정체성은 공동체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평가가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도덕교육의 현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 구성원의 도덕성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로, 특히 구성원들의 경쟁과 이기적 성향이 심화되어 인간관계가 황폐화될수록 사회 존립의 기반으로서 구성원들의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

1) 때로 공동체와 사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전자는 원시공산사회에서처럼 개인 간 지위의 차이가 없으며 공동으로 생활하고 운명공동체로 이루어진 경우를 일컫고, 사회는 지위나 신분에서 다른 개별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을 일컫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두 용어를 혼용해서 쓸 것이다.

www.kci.go.kr

기 위한 도덕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Durkheim, 1973; 한상욱, 1999에서 재인용).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이나 정의감을 함양하기보다는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기술이나 정보 등 인지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장면에서 도덕성의 함양과 공익의 실천보다 기능과 개인적 욕구의 충족을 우선시하는 풍토의 뿌리를 근대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지식과 삶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부란 곧 앎에 근거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우주의 근본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본분을 수행함으로써, 자연과 자신의 조화와 합일을 이루는 것이 공부의 최종목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사회에서의 공부론은 수양론이다(정순우, 2007).

그러나 일제 식민지 때 서구의 문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공부론은 그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 당시 지식인을 포함한 위정자들은 우월한 서구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열등한 전통문화를 고수한 것이 식민지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국강병의 유일한 길은 야만의 전통을 문명의 서구문화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교육도 마찬가지였으니, 기존의 수양론 대신 다양한 문물의 발달을 가져온 실용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득세하기 시작했다(김진송, 1999).

기존의 전통적 세계관이 뿌리 채 뽑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양의 사고체계가 그 자리를 온전히 대신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단절의 결과로 한국인의 가치관과 행동 등에서 심대한 이중성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인의 가치체계는 더욱 서구화되고, 현재적 시점에서 보면 전통과 서구의 문화적 특성 중 바람직한 측면들로 이루어져 있다(가령, 전통의 인본주의, 서구의 합리주의, 평등주의 등). 한편, 그들의 행동은 전통과 서구의 주로 부정적인 특성(가령, 전통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서구의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등)에 기초하고 있다(정태연과 송관재, 2006). 말하자면, 한국사람들의 도덕은 머릿속에만 존재할 뿐, 실제 그들의 삶은 수단이나 방법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매진할 뿐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있었지만, 그것을 서구문화의 맹목적 수용 그리고 문화적 혼재 속에서 가치관과 행동의 이중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40년에 걸친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봉건적 문화와 식민 문화, 미국의 시민문화가 혼재하면서 정치권력의 전횡, 소수재벌의 이기성, 한탕주의적 사회풍조, 대중들의 가족주의적 집단 이기주의가 한국사회의 도덕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박종주, 김성관, 손충기, 심대섭, 1992). 대학생들도 준수해야 할 전통적 덕목으로 효, 예절, 인, 정의, 인내, 용기, 충과 복종 등을 그리고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67.51%),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17.95%), 향락퇴폐문화(6.7%), 정치경제의 불안(4.42%), 현대과학기술의 영향(3.41%) 등을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요인으로 꼽고 있다(이숙종, 1994).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학교의 도덕교육 역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실제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가 도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도덕교육에 형식적 수준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는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신에, 학

www.kci.go.kr

교교육은 개인적 욕구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유용성 가령, 물질적 성공주의, 전통적 출세주의, 도구적 교육관, 배타적 가족 이기주의, 과열된 교육열 등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주된 이유는 문화변동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의 종말과 서구가치관의 피상적이면서도 맹목적 수용에 있다. 말하자면, 주체의 상실 그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복합적인 도덕 문제들이 발생하여 사회통합이 저하되므로,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제도에 대한 철학적, 도덕적 성찰을 통해 개인적 자아실현과 사회적 문제의 비판 및 실천적 능력의 함양을 강조한다(이미식, 김희재, 2006). 이를 위해 도덕교육이 기존의 인지적 영역 이외에 정의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까지 포괄하고, 도덕적 감성과 행동 습관을 기르기 위해 이론수업과는 별도로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자치 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영역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6차 교육과정에서처럼 '민주시민교육', '통일대비교육', '국가 안보교육' 등을 포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도덕과목에 주어지는 시간은 6차 교육과정에서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줄어, 자연히 도덕과의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제한된 시간과 주요 교과목의 학습에 밀려 도덕교육을 제대로 실행할 수가 없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가 없다. 장성관(2006)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대학생들은 도덕교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론위주이고 비현실적'(50.1%), '재미가 없다'(중학생 61.6%, 고등학생 81.9%) 등을 지적한다(장성관, 2006). 또한, 학생들은 체험학습(63.8%)과 봉사활동(60.1%) 에 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20.3%)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아 특정 인성을 양성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도덕적 심성 중 '신뢰성'은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경험 그리고 '책임성'은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 경험 그리고 '이타성'과 '진실성'은 봉사활동 경험과 큰 관련성이 있었다. 도덕적 심성의 성숙은 이들이 받은 교육의 양과 질에 따라 개인차가 컸다.

통계청에서 2000년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교육의 효과에 관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학교교육이 '기술지식의 습득'에 가장 효과가 있고, 다음으로 '인성교육', '생활직업에의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사회관의 확립'에 도움이 된다. 2004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중학교 재학생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대학재학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낮게 평가해, 청소년에 비해 성인들은 학교교육이 인성개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가정은 한 개인의 성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일차적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도덕성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이숙종, 1992), 응답자들은 도덕적 행위의 95.83%가 가정교육과 부모의 영향에 따른 것이고, 어머니(46.7%)와 아버지(37.39%) 그리고 그들의 생활상(37.73%),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24.16%), 언행

www.kci.go.kr

(14.08%)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양육에서 개인적 욕구보다는 도덕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부모들 역시 거대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대신 적자생존을 지향하는 성취압력에 더 열을 올릴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가 더 도덕적으로 행동할까? 만약 지금까지의 학교의 도덕교육이 성공적이었다면, 학교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가 더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부모의 그러한 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자녀도 도덕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용 가능한 연구들을 보면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강완숙(1998)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도덕적 행동에 기여하지 못했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그들을 돕는데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수준과 관련이 깊은 변인으로서 부모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주의적 가치지향과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이 증가했다. 이 때, 물질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성취능력을 강조하는 반면,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과 원조는 덜 강조했으며, 이러한 가족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도덕성과 자신의 시민적 자질도 낮게 평가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교육과 경제 등 더 많은 혜택을 받은 부모가 자녀를 더 도덕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크다.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3)이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도덕성이 또래집단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Hanson et al., 1984; 허태균, 2005 재인용). 실제 한국 청소년의 의식조사에서(박종주 등, 1992), 그들은 또래의 생각과 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사고방식과 행동이 부정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친구가 많다고 보고했다. 또한, 친구의 따돌림이 일탈행동을 가속화시키는 다양한 심리적 기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으로 드러나(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학교장면에서 따돌림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또래들이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도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은 출세하기 위해서는 돈과 배경이 든든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 살기 때문에 출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박종주 등, 1992). 특히, 청소년들이 보이는 일상적인 행동양식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은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외면하고 자기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도구적, 편법적 행동양식이다(임희섭, 1995).

도덕교육에 대한 학교의 전반적인 실패는 학생들의 여러 일탈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은 좁은 의미에서는 청소년 범죄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유형의 문제행동을 일컫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청소년 범죄와 폭력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방해하는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전체 범죄 중 청소년 범죄는 3.6%를 차지하고

www.kci.go.kr

있으며, 이들 중 학생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67.4%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 범죄 재범률에 대한 통계(대검찰청, 2007)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초범이 62.3%, 재범 이상이 31.1%로 나타났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b)의 연구에서도 초·중·고등학생의 폭력가해 행동과 폭력피해 경험이 일탈행동과 정적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한 번 일탈행동을 하면 그러한 유형의 행동을 반복하기 쉽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년 범죄의 경우, 청소년의 폭력화 추세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거의 일상화 되어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청소년 범죄의 수는 줄고 있으나 강력범죄(흉악, 폭력)의 발생은 늘고 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23.8%(고등학생 29.1%, 중학생 27.6%, 초등학생 16.1%)가 남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거나 부순 경험이 있었고, 13.2%(고등학생 12.7%, 중학생 13.8%)가 폭력서클에 가입해 본 경험이 있었다. 또한, 남학생 33.2%, 여학생 14.2%(남고학생 36.2%, 여고학생 14.2%, 남중학생 30.6%, 여중학생 15.2%)가 다른 학생을 폭행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통계치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폭력에 관여하고 있고, 더군다나 고학년과 저학년의 차이가 없다는 점은 학교교육이 청소년의 폭력을 예방하거나 감소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회문제로,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집단 따돌림(일명 왕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집단 따돌림의 양상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발생 빈도도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2003년 조사에서 보면, 남학생 41.1%, 여학생 54.8%(남고학생 38.3%, 여고학생 53.5%, 남중학생 41.4%, 여중학생 66.6%, 초등남학생 43.1%, 초등여학생 46.5%)가 다른 학생을 집단따돌림 해 본 경험이 있었다. 박효정(2005)의 연구에서는 9.2%의 학생이 주로 같은 학교 동급생에 의해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따돌림이 학교에 만연해 있으며, 학교수준이 높다고 해서 이러한 폭력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면, 청소년들의 윤리적 해이현상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로 간단히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한국사회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변화와 직면한 사회병리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문제다. 근대 이후 한국사회는 교육을 도구적 측면에서만 평가하여, 교육이 어떤 목적-경제발전, 사회 계몽, 지배 이념의 재생산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나 도덕성을 함양하기란 매우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사회의 문화적 측면과 학교, 가정 및 또래의 맥락이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원봉사활동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지역사회가 급격히 와해되면서, 사회구성원 간 연대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희박해졌다. 대신,

www.kci.go.kr

개인생활 및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성취중심적인 경향성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현외성 등, 1998).

이러한 교육적 목적과 맞물려 우리 사회는 1995년에 '5·31 교육계획안'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정한 바 있다. 이 계획안은 전 사회의 교육장화, 실천 중시의 교육, 인성·도덕교육의 강화, 개별성을 고려한 교육 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강한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더불어 사는 인간', '도덕적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을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간상으로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청소년 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자원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다(이경은, 김중대, 2000).

자원봉사는 이타주의, 헌신, 자유의지, 학습, 경제적인 무보수성, 조직화, 심리적 이득, 희생을 그 특징으로 하며(현외성 등, 1998),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입시위주의 교육적 환경으로 인한 병폐를 개선하고 건전한 인성 형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권순미, 2004, 홍연숙, 2000). 즉,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위하는 경험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다. 또한, 봉사활동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사회문제의 발생과 해결책에 관한 이해와 실천능력을 함양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를 체험함으로써 정신적·심리적으로 성숙해 질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취지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점수제를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났다. 이에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그와 관련된 사회적 및 학교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과 대학생, 성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살펴보겠다. 그 다음, 외국의 사례로 일본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는 전체 인구의 14.3%였으며, 이들 중 48.5%가 아동·청소년·노인 관련 기관에서 활동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5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13.9%)이었다. 자원봉사 유경험자 중 72.5%는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사람들이 봉사하는 기관이 주로 사회적인 약자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봉사활동이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의식이 강해 보인다. 또한, 1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학생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에 따른 결과로 보이고, 40대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학교교육보다는 그들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2006)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영역과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영역 역시 일손 돕기(각각 35.2%와 19.4%)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전에 참여해보지 못한 다양하고 독특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높았지만, 봉사활동 시 어려운 점으로 봉사활동 할 곳을 찾는 것,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 그리고 봉사할 시간의 확

www.kci.go.kr

보 등을 꼽아, 봉사활동 관련해서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학생들이 봉사활동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중학생: 99.7%, 고등학생: 96.8%), 활동을 하는 동기적 측면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한 경우(46.5%)보다 내신 성적 반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52.8%)가 많아, 자원봉사가 비자발적이면서 성적을 위한 도구적 특성이 좀 더 강했다. 이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에서도 자기희생(56.0%), 사회기여(53.1%), 자기성장(52.4) 등으로 나타나, 자원봉사를 자신에 대한 희생으로 보는 경우도 상당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중학생 60%, 고등학생 62.7%), 그들의 봉사활동은 상당히 다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1년간 적합한 봉사활동시간으로 다수의 중학생이 10시간(43.7%), 고등학생은 20시간(40.6%)으로 평가하여, 현재 학교가 정하는 의무시간(중학생 18시간, 고등학생 20시간)을 넘지 않았다. 실제 그들의 참여시간도 1년 중 20시간 이하가 75%(6~10시간 이하가 29.7%)로 나타났다. 또한, 내신반영을 하지 않을 경우 약 51%의 학생들만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점들은 청소년들 상당수가 점수를 얻기 위해 학교가 정한 의무시간에 한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봉사활동 의무가 없는 대학생의 경우는 어떠할까? 2000년도에 이루어진 천희영의 연구에 따르면, 44%의 대학생이 봉사활동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2006년도에 이루어진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조사 즉,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봉사경험이 있다는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인용한 2006년 통계청 자료 등을 감안할 때, 대학생이 청소년기 학생들에 비해 봉사활동에 덜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학생들의 72% 정도가 봉사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김욱, 송미영, 2007), 실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참여 동기로 불우이웃돕기(51.0%), 여가선용 및 자기 발전(24.9%) 등(김미숙 등, 1988), 불우이웃돕기(38%), 사교경험(19%), 사회발전에 기여(19%) 등(표갑수, 1993), 인간에 대한 이해 및 새로운 경험(47%), 이타주의 및 봉사심(26%) 등(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봉사점수를 얻기 위한 청소년들의 주된 동기와는 상당히 다르지만, 자기지향적인 측면은 여전히 강해 보인다. 또한, 대학생들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을 자기희생(62.6%)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김중대, 1998). 봉사활동을 중단하는 이유로, 부적응, 보상체계의 불만, 기대와 불일치, 갈등/불화, 동기 상실, 시간부족 등으로, 대부분이 개인 내적인 문제로 귀착된다(홍연숙, 2000). 또한, 봉사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여가시간의 부족, 용기부족, 학업에 대한 지장, 기회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천희영, 2000).

여기에서 소수이지만 일본과 미국의 자원봉사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김중대, 양점도(1999)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 모두 자원봉사를 사회적 및 개인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학생들은 사회복지시설(52.9%), 아동,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돕기(48.7%) 등이 대부분인 반면, 일본학생들은 자연이나 환경 보호

www.kci.go.kr

활동(58%), 전통문화 육성과 문화유산 보존(32.2%) 등이 대부분이었다. 특기할만한 점으로, 자원봉사 경험은 한국학생(88.5%)이 일본학생(34.0%)보다 더 많았고, 대신 학업과 자원봉사의 양립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학생(45.4%)보다 더 많은 일본학생(68.8%)이 동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학생들이 자원봉사 점수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에서 한국청소년들의 학업 관련 특성은 다른 유형의 응답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를 들면, 참여 동기로 한국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체험(58.5%), 진학에 유리한 점수(40.9%)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청소년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46.0%)가 높았다. 자원봉사에서 어려운 점으로, 한국청소년들은 학교공부로 인한 시간부족(83.7%)을 압도적으로 많게 들었지만, 일본청소년들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봉사활동 평가방법으로, 한국학생들은 학교성적에 반영해 달라는 응답(58.4%)이 가장 높았고 일본 학생들은 표창장을 달라는 응답(57.7%)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는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학교공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에 이어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미국노동부에 의하면(US Dept of Labor, 1990), 1년에 약 3천 8백여 명의 미국인들이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봉사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그 사회에서 자원봉사정신 만큼은 퇴색하지 않고 미국의 도덕적 중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원영준, 1995, 재인용).

미국청소년(14-24세)의 경우, 1985년도 갤럽조사에서 그들의 약 52%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1993년의 조사에서는 61%가 일주일에 평균 3.2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하고 있었다(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1993; 원영준, 1995 재인용). 이들은 봉사활동을 주로 학교나 기타 교육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가장 많이 하고, 그 외 시민단체나 정치단체 등에 골고루 참가하고 있었다(US Dept OF Labor, 1990). 이는 미국청소년들의 자발적 봉사활동비율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봉사시간도 한국청소년에 비해 상당히 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미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먼저, VISTA 프로그램에는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1~2년간 참여해 훈련과 지도를 받고 봉사한다. 이들은 숙박비와 식비, 잡비, 보험 등의 보상을 받는다. 두 번째는 평화봉사단으로, 주로 18세 이상의 대학생들은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 각 분야별 프로그램을 맡아 2년간 해외봉사활동을 하는데, 참가자들에게는 언어와 문화 교육을 제공한다. 세 번째는 전국학생자원봉사프로그램(NSVP)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마약, 청소년 범죄)에 직접 관여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현장실습을 하도록 한다. 네 번째, UYA는 대학생들이 빈곤퇴치사업에 1년 동안 봉사하고 그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인데, 대학은 이들에게 침식, 여행 의료보험 등의 최저 10%를 지원해 준다. 이처럼 미국은 정책적으로 청소

www.kci.go.kr

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고,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실질적인 작업 기술, 대학 진학, 취업 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활동 관련 한국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제대로 알려주는 구조적인 제도가 미흡하다. 그래서 그들은 봉사활동을 단지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소극적, 미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언제든 상황이 생기면 봉사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봉사활동제도가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어, 입시제도가 치열한 이 사회에서 봉사활동은 언제가 성적과 연관됨으로써 그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가 어렵다. 물론, 봉사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꼭 점수일 필요는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기 쉽고 심지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대학 입학과 같은 개인적 이익을 얻는데 기여하는 행위 정도에 불과하다(홍후조, 2004).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적 정체감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감은 그의 개별적 특성에 근거하는 개인정체감(personal identity)과 그가 속한 사회나 집단에 근거하는 사회정체감(social identity)으로 되어 있다(Tajifel, 1982; Tajifel & Turner, 1979). 사회정체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정체감으로서, 그 사회에 대한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소속된 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그들의 사회정체감은 심각한 손상과 혼란을 겪게 된다.

이 때, 긍정적인 사회정체감을 형성한 구성원이 그렇지 않은 구성원에 비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억제할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자신이 속한 집단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집단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볼 때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사회정체감이 부정적일 때, 그 구성원은 개인정체감에만 근거해서 행동함으로써,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욕구충족을 우선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이 강한 공동체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 속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들은 한국사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학교, 한국사람 및 한국사회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살펴보겠다.

원론적으로, 학교교육은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공통의 규범 또는 가치관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이다. 교육에서는 공통필수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한 공통의 지식, 가치, 행동양식을 강조한다. 실제로 성공적인 학교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협동적으로 실천하여 달성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홍후조, 2004). 그러나 실제로 학교교육 역시 그 사회의 구조나 풍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교육은 그 사회의 문화를 창조하면서도 그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학교교육의 본질은 자본주

www.kci.go.kr

의와 경쟁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특성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실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령, 황갑진(2002)의 연구에 의하면, 50%가 넘는 학생들이 학교나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으므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절반의 학생이 교사를 상담자가 아닌 감시자로 인식하여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불신의 이유는 학교조직의 운영 및 학교문화,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연구(홍후조, 2004)에서도 학생은 교사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 자신은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고, 학업지도를 열심히 하고,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각각 90.5%, 80.7%, 71.25%), 학생들은 이에 비해 소수만이 교사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다(각각, 55%, 44.%, 38.7%).

같은 맥락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가 발달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중학생 시기에 낮아졌으나, 고등학생 시기에 다시 크게 증가하고 대학생 시기에는 다시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지은림과 김성숙, 2004)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담임교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사와의 관계에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도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은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교사 450명과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이성호, 2000), 교사들은 학교붕괴의 원인을 교육제도 및 구조의 경직성, 교육부의 정책실패, 학생문화의 급변, 교육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 순으로 보았고,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 교육제도 및 구조의 경직성, 교육부의 정책 실패, 사회변화에 대한 교원들의 무지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여러 원인의 핵심은 입시정책인데, 지금까지 입시정책의 기본적인 틀만 10여 차례 이상 개정되었으며, 세부적인 시행안까지 고려하면 수십 번이 넘는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거시적인 목표와 안목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정책 및 교육부에 대한 불신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김의철 등(2004b)은 학생집단과 성인집단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먼저, 중학생과 대학생은 한국사회의 정치(95.1%), 경제(88.4%), 한국사회(77.3%), 한국사람(58.4%)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한국문화(56.1%)는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들은 정치인들이 전문성의 결여나 무능력보다는 도덕성의 결여 및 부정부패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불경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또한, 이들은 부정부패를 한국사회의 가장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었다. 대신, 한국문화의 전통과 미 그리고 독창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한국사회를 거의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모, 형제자매, 친구를 가장 신뢰하는 반면, 대부분 공공기관을 불신했다. 특히, 국회와 정당을 가장 불신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경찰서와 교육기관의 신뢰수준도 중간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기적(19.8%) 및 도덕성 결여(13.9%)가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인정(17.9%)이 가장 높았다.

www.kci.go.kr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세대들 간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태연과 송관재(200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150명과 40세 이상 성인 155명이 한국의 전통적인 특성과 서구적 특성을 나타내는 7개 차원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 한국인의 행동을 평가했다. 그 결과, 두 세대 모두 한국인의 행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태연(200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과 그 부모들은 한국사회를 물질주의적이고 실리위주이며, 편법적, 귀속적 및 온정적인 특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는 무규범적이고,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통제력이 낮고 주관적 안녕감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요약하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당국이나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또한,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으며, 그 주된 내용이 이기심과 부도덕성이었다.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매우 컸으며, 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 결국,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부정적 사회정체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기적 행동과 같은 한국인에 대한 비하와 폄하적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학교교육의 근본 목적이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원의 양성이라고 보고, 주된 연구문제로 우리의 학교교육이 과연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삼았다. 또한, 공동체의식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안으로, 도덕교육,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전반적인 결과, 한국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다. 실제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은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봉사활동도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한국사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측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청소년들이 앞으로 한국사회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주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어떻게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까?

효율적인 도덕교육을 위한 대안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입시제도와 문화가 바뀌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 원론적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대안도 그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가치와 규범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복잡한 생활양식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덕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변할 수 있다(이미식, 김희재, 2006). 따라서 도덕교육도 상황과 시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도덕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사회전반에 걸친 상황적 인식이 필요하고(김동수, 2007), 21세기에 맞는 도덕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서 공

www.kci.go.kr

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 속에서 도덕적 행위가 삶의 맥락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성숙한 인간의 특징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그들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다양성 수용하기' 프로그램을 학교교육에 포함하여 차이점과 유사성 찾기, 다른 문화 탐구하기, 고정관념과 편견 및 차별을 이해하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개인의 차이를 가치롭게 인정하는 것을 학습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학교교육은 인지적 측면만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냉철한 머리는 있으되 뜨거운 가슴이 없는 비균형적인 학생들을 양산해 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서적 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행동과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봉사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제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홍연숙 2000).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모두 적극적인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정부주도하에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후원하고, 적절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봉사활동을 단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 이상의 국가봉사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양대의 '대학생 여름 환경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국립공원 등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호연지기도 키우고 환경도 지키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서원대는 '사회봉사단'을 만들어 장학금을 주면서 해외 봉사활동을 체험하게 하고 있다. 또한 '중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에서 2주 이상 일하며 경험을 쌓고 급여와 학점을 받기도 한다(중앙일보 2005, 2.14).

도덕교육과 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작금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한국의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정체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방 이후 6-70년대에 비해 오늘날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경제적인 성장은 괄목상대하고, 정치적으로도 독재정권에서 민주정부로의 이양을 달성하는 등 큰 발전을 달성했다. 사회적으로도 국민들의 사회의식과 사회시스템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정치인의 부정부패, 환경오염, 공무원 부정부패, 입시위주 교육, 높은 실업률, 집단 따돌림, 권력형 비리, 정치적 무능, 지방대 출신 취업난 등(한덕웅, 강혜자, 2000)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사회적 투명성과 공정성 및 배려가 더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강완숙 (1998). 가족의 가치지향과 부모의 도덕성 및 훈육이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의

www.kci.go.kr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2).

권순미 (2004).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Vol. 2004, No.3. 11-23.

김동수 (2007). 누가 부정행위를 허용하는가?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숙 (1998). 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효율적 운용방안. 보건복지포럼, 28, 40-52.

김 욱, 송미영 (2007). 대학생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도와 정책적 함의: 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강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8, 5-29.

김의철, 박영신 (2004a).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한국 사람과 공공기관 및 국가에 대한 신뢰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7-158.

김의철, 박영신 (2004b).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103-129.

김인영 편 (2002). 한국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거시적 접근). 소화

김중대 (1998).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비교 연구: 자원봉사 교과목 수강 및 비수강학생을 중심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학술논문집, 제 58호, 365-386.

김중대, 양점도 (1999). 한・일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비교연구. 복지행정학회, 9, 253-280.

김진송 (1999).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박종주, 김성관, 손충기, 심대섭 (1992). 한국청소년의 도덕성・공익성 실태분석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연구, 제 9호, 1992여름, 71-91.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자원봉사센터 (2006). 청소년봉사활동 의식조사보고서.

오욱환 (2002).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서울: 교육과학사

원영준 (1995). 미국의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한국청소년연구 23, 115-127.

이경은, 김중대(2000). 청소년 사회참가활동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10.

이미식, 김희재 (2006). 도덕과 교육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도덕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54(3), 299-328.

이숙종 (1994). 후기 산업사회 새로운 도덕성(2): 후기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도덕성 정립을 위한 교육의 과제와 전망(Ⅱ). 기독교사상, 1994년 8월호, 통권 제 428호, 58-87.

이재민, 황선영 (2004).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과 추계공동학술대회.

정순우 (2007). 공부의 발견. 서울: 현암사.

정태연 (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1-19.

정태연, 김명원 (2003). 중등교육과정에 따른 여학생의 학습적 및 심리적 특성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2), 53-70.

정태연, 송관재 (2006). 한국인의 가치구조와 행동 판단에서의 이중성: 대학생, 성인 및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49-68.

조휘일 저 (1998). 자아실현과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개정판. 홍익재.

www.kci.go.kr

지은림, 김성숙 (2004).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담임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비교. 교육발전연구, 20(2) 83-101.

천희영 (2000).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사회봉사 경험과 참여욕구에의 영향요인. 청소년복지연구, 2(1), 3-15.

통계청 (2006). 2006년 사회통계조사결과 (가족, 보건, 사회참여, 노동). (www.nso.go.kr)

표갑수 (1993). 중, 고등학생의 중퇴요인과 대책: 중퇴자와 재학자의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1), 127-14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7). 자원봉사 프로그램 백과. 서울: 사회복지협의회.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사회에서 사회 문제의 지속과 변화: 1994와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5-37.

한상욱 (1999). 부모의 도덕적 기대가 중등학생의 도덕적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 28집, 267-301.

현외성 외 2인 (1998). 대학사회봉사론. 유풍출판사.

홍연숙(2000).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및 중단원인에 대한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2), 3-30.

홍후조 (2004).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적 신뢰의 형성과 확대.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7-138.

황갑진 (2002). 학생의 학교불신 원인에 관한 연구: 민주화시기에 가정 및 학교 요인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4(2), 225-278.

Tajifel, H. & Turnu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C. Autison and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lif: Brooks/Cole.

Tajifel, H.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0. 01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11. 2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8, Vol. 14, No. 1 (특집호), 469～485.

Problems of Korean School Education Seen from the Standpoint of Enhancement of Community Spirit

Taeyun Jung **Kyung-Sook Jeon** **Eun Mi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see through literature review if Korean formal schooling plays role in enhancing community spirit on the part of students. Seen as quite relevant to community spirit, moral schooling, students' volunteer activities and their evaluation of the Korean society were examined. Results indicated that Korean schooling orients itself to instrumental functions for personal goals rather than heightens community spirit of students. Moral schooling remains formal and superficial, and students' volunteer activities are mandatory in nature for getting good marks. Further, students' evaluation of their school, Koreans and the Korean society are quite negative. In conclusion, methods for enhancing community spirit were discussed.

Key words : community spirit, moral schooling, volunteer activity, and societal evaluation.

www.kci.go.kr